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① 강남대 이찬수 교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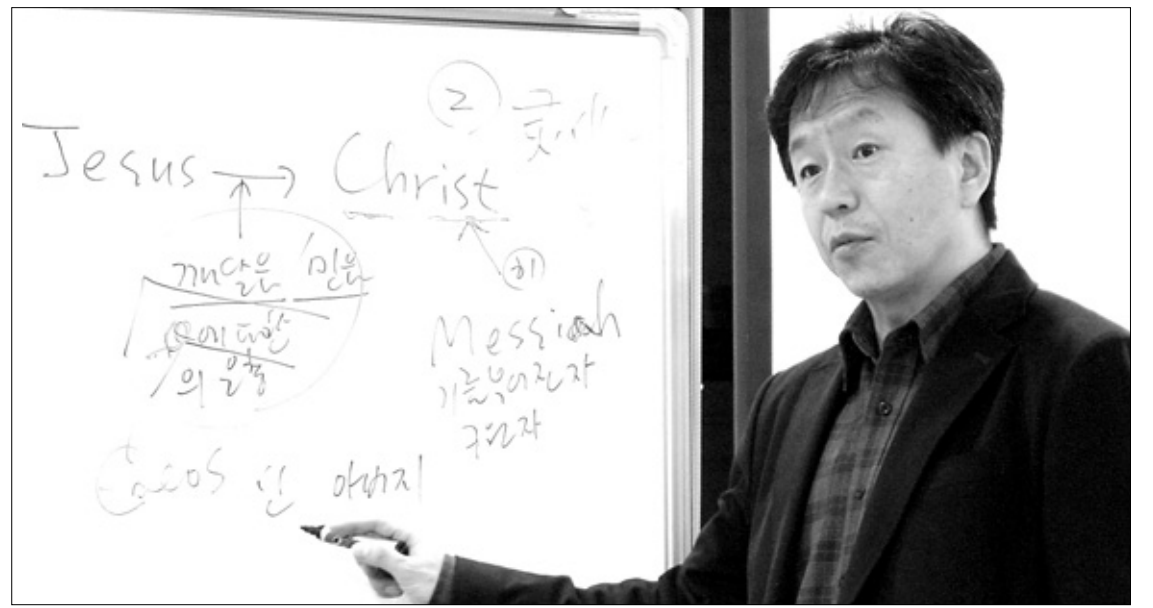


대안연구공동체(대표 김종락)는 3월 21일부터 서울 서교동 서교빌딩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를 주제로 9주간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사는 이찬수 강남대 교수(종교문화연구원 원장)가 맡았다. 이찬수 교수는 "불교의 핵심사상인 연기, 무아, 공, 보살, 불성, 여래장, 유식 등과 기독교 신학의 중심 개념을 비교하면서 두 종교 간 접점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이라며 "불교와 기독교 간 오해에 기인한 상호 갈등의 끈이 조화와 평화로 역전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강의주제는 △붓다와 예수 △공(空)과 하느님 △대승기신론과 신학의 구조 △열반과 하느님 나라 △보살과 예수 △불성과 하느님의 모상 △자력파 타력 △보신불과 그리스도의 몸 △(대승기신론)과 (요한복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업 방식은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강의 교재는 김희성 서강대 교수의 <보살예수>, 이찬수 교수의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 (인간은 신의 암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찬수 교수는 불상에 절을 했다는 이유로 강남대 교수직에서 해직됐다 최근 복직했다. 서강대 화학과 졸업, 서강대 종교대학원 불교학 석사,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비교 박사 취득, 대화문화아카데미 연구위원, 종교문화 연구원장으로 있다.

강리교 신학대, 서강대, 성공회대, 원광대, 이화여대, 한신대, 일본 코세이가쿠린 등에서 불교학, 종교철학, 비교종교학, 종교신학, 한국문화 강의를 했다. 저서로는 <불교와 그리스도교 깊이에서 만나다> (인간은 신의 암호) <종교로 세계읽기> (한국 그리스도교 비평) (일본정신) (생각나야 생각하지) 등이 있다. www.paideia21.org (02)777-0616 정리=이성연 기자



붓다와 예수는 가장 순수하고 자유롭게 살았다

"불교와 기독교는 사상의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코드'가 맞는 종교이자 심층적 문법이 맞는 종교다." (보살예수)

인간의 상통성을 살펴보는 최고의 수단은 동양사상의 핵심축인 불교와 서양사상의 핵심축인 기독교에 있다.

두 종교는 교리나 사상의 현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코드가 맞는 종교이자 '보편성과 세계성'이라는 상통점이 있다. 20세기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시대 최고의 사건은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종교의 '만남'의 접점은 진리의 보편성이 된다.

수천 년 진리의 보편성을 확인해준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다. 불교든 기독교든 민족적 특수성을 넘어 누가 들어도 수긍할 만한 보편성과 세계성이 있다. 보편성과 세계성이 온 인류를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적 종교로서 인종·지역·문화를 초월해 전해지고 있다.

이슬람교는 약간 관점이 다르다. 이슬람교는 보편성을 지녔으나 삶 전체를 율법이라는 성스럽고 정형화 된 행위, 곧 종교적 의례(ritual)로 살도록 명하는 종교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해 한·중·일은 물론 태국·미얀마·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 불교는 동양사상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교를 모르거나 미래세계 종교지도를 그리기 힘들다. 미국에도 불자는 400만 명이 넘으며, 프랑스도 가톨릭이 주도적인 나라이지만 가톨릭을 제외하면 불교 신자가 많고, 영국도 불교도가 늘어가고 있다. 불교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각광 받고

있는 사상이자 영적 운동이며, 심대한 변화를 일으킬 종교다.

하지만 전 세계에는 100년 이래 사유와 인식, 외적인 삶의 형태인 의식주가 서양적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서양적 패러다임의 핵심은 기독교다. 한국 사회에서 배타적 기독교인이 몇 가지 문제점을 일으켜 안타깝지만 기독교의 심층 세계를 살펴보면 서양사상의 근간이고, 세계정신사회의 한 축으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붓다와 예수는 닮은꼴

붓다와 예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한 영적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자기와 세상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초월을 통해 철저히 변화된 자기와 세상을 갈망했다. 도덕적·영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들 삶의 추동력과 원동력은 자기 내면의 문제가 해결된 이의 에너지다. 이 에너지가 사회와 주변을 바꿨다. 예수와 붓다는 혁명의 파장과 파고, 충격과 열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초월적 구원을 추구하는 영적 혁명은 무엇보다 자기부정에서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무아의 진리를 철저히 깨달아 거짓된 자아와 아집을 버리는 영성이며,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상징하는 자기 부정의 영성이다. 진정한 생명, 구원은 탐욕과 무지가 판치는 현세적 질서와 치열한 대결과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불교나 기독교는 세간의 집착으로부터의 초월을 이야기 한다. 두 종교간 세계성은 보편적·초월적·영적 인간관에 기인한다. 현실자체가 아니라 세상과 세간 자체의 초월을 추구한다.

붓다와 예수는 가장 순수하고 자유롭게

살았다. 가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세속적 질서를 떠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거나 바라지 않는 완전한 무소유와 무욕의 삶을 살았다. 또 무차별적 사랑, 완전하고 순수한 사랑과 자비로 모든 사람을 품었다.

불교와 기독교의 열반, 해탈, 구원 등은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극단적인 이상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다. 기독교는 '하느님 나라'와 '하늘나라'라고 했다. 언어는 다르지만 열반과 하느님 나라의 관계는 이질적이지 않다. 하늘나라는 구름너머의 특정 공간이 아니다. 인간 지배체계에 따라 들어가는 차별적 세상이 아닌, 신의 다

의적 용어로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다. 구원은 현실에 안주하고 집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에 있으면서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힌두교와 불교의 관계,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와 매우 비슷하다.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민족종교가 그리스 철학과 만나면서 세계 보편종교로 거듭났다. 불교는 힌두교라는 인도 민족종교에서 출발해 세계 보편종교가 됐다.

불교는 힌두교의 다르마(dharma, 法) 개념을 수용했으나 그것을 보편적 윤리, 내면적 윤리로 승화했다. 불교의 다르마는 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가리키거나, 해탈을 위해 닦아야 하는 마음의

문제까지 있는 존재로 여긴다. 힌두교가 카스트제도와 같은 사회체제나 신분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적 고착성을 보이지만 불교는 그것을 극복해 보편적 가르침으로 나아갔다.

고타마 싯다르타 왕자가 붓다가 되고,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그리스도로 불리게 된 것은 인간존재의 근원, 구조를 깨달은 이에게 부여되는 호칭이다. 붓다(Buddha, 佛陀)나 그리스도(Christ)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성취한 자에게 주어지는 칭호, 개인 역사적 존재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타마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고 붓다(Buddha)라는 칭호를 얻었다. Buddha는 깨달음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다. '그리스도(christ)'는 당시 유대 민족의 기대와 민족 구원의 갈망에 부응한 이상적 지도자에 붙여지는 호칭 '메시아(Messiah)'라는 뜻이다. 낱말의 기본 뜻은 기름부어진 자, 의미상으로는 구원자·인도자다. 예수는 사람이 메시아의 뜻인 그리스어 'Christ'로 불리게 됐다.

싯다르타 왕자가 6년 고행 끝에 깨달았기 때문에 붓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깨달음 또는 믿음에 기반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호칭이 바뀌는 것도 공통점이다.

붓다는 열반에 들면서 자등명 범등명이라며 사람들에게 법에 의지하라 했다. 예수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한 적이 없다. 유대교를 기반으로 나온 예수시대 가르침은 인간을 신화시키고 신적차원으로 높이는 것을 경계했다.

오늘날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칭호를 받게 된 이유와 역사적 사실을 빼놓아 신을 하늘에 모셔두고 아쉬울 때 찾

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존재, 맹목적 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 문제다. 불교에도 기복적 신앙을 하는 이가 있다. 이들의 어마어마한 노력과 공부, 삶은 빠지고 이상적 존재로 신격화돼 모셔놓고 따르고자 하는 민중적 질서도 한국에서는 비슷하다.

불교는 과연 자력종교인가? 불교든 기독교든 주어진 사실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나왔다. 점에서 중요하다. 내가 만들어낸 사실이 아니라 나를 나 되게 해준 기반을 불교에서는 '법(法)', 기독교에서는 '신(神)'이라고 표현했다. 불교에서는 본래 자아라고 하는 것도 없다고 한다. 깨달음도 붓다가 이뤘지만 붓다가 개인이 이룬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상관관계, 우주법칙 속에서 깨달은 것이다. 그런 의미의 관계성, 본래 주어진 사실들 즉 은총적 측면, 타락적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본래 주어진 데서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불교의 은총적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은총은 주어진 선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자력이라는 것, 내가 다한다는 것은 교만일 수도 있다. 자력도 교만일 수 있다. 진리 앞에 겸손할 때 종교에서 '자력'이란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진리의 힘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지 나 자신의 힘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불교 철학의 전개과정을 보면 끝없이 붓다를 붓다 되게 한 근원 법, 법신, 여래장이 다 현실을 현실 되게 한 근원이다. 자력이라는 말로 쉽게 규정할 수는 없다. '나'라는 것이 실제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불교와 기독교의 보편성을 강조해야 할 때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측면을 강조하고 불교에서는 은총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보완해야 한다.

불교와 기독교 점점 '보편성과 세계성' 불교 '은총', 기독교 '깨달음' 강조해야

스림을 말한다. 해가 누구에게나 고루 비추고, 비가 누구에게 고루 내리듯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동일한 은총을 베푸는 세계다. 하느님 나라는 열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나 기독교는 자신을 바꾸는 데 더 큰 무게 중심이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대체로 나를 바꿀 것인가.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있어 나를 바꾸는 쪽에 무게중심을 둔다. 나를 바꿔야 세계가 바뀐다는 이야기다. 언어상의 차별성은 있지만, 바뀐 자신의 세상을 바꾸는 것을 구원, 해탈, 열반이라고 한다. 불교나 기독교는 (종교학

적 용어)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다. 구원은 현실에 안주하고 집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에 있으면서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힌두교와 불교의 관계,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와 매우 비슷하다.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민족종교가 그리스 철학과 만나면서 세계 보편종교로 거듭났다. 불교는 힌두교라는 인도 민족종교에서 출발해 세계 보편종교가 됐다.

불교는 힌두교의 다르마(dharma, 法) 개념을 수용했으나 그것을 보편적 윤리, 내면적 윤리로 승화했다. 불교의 다르마는 주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가리키거나, 해탈을 위해 닦아야 하는 마음의

"승기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들이 방안에 마가목 가지들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개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코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속취를 해소

-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민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전화번호: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행복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